

위성곤 당선인과 제주현안 (4)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불편’ 민원에 공감... “전면 재검토” 시사

오 도정, 제주시 서광로 시작으로 구간 확대 추진
도 “버스 속도 개선” vs 운전자 “풍선포일 뿐”
위 “도심 급행·마을 순환버스 운영해 이동권 보장”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존재 갈림길에 섰다. 위성곤 제주시 당선인은 선거 기간 제주형 BRT의 핵심인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폐지까지 염두에 두는 발언을 했다.

민선 8기 도정이 추진한 제주형 BRT는 지하철처럼 문이 양쪽으로 열리는 양문형버스가 도로 한 가운데 마치 섬처럼 조성된 섬식정류장에서 승객을 승차하라는 것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됐다. 양문형버스는 버스 전용 중앙차로로 운행한다.

오른쪽에만 출입문을 둔 기존 버스가 승객을 승차하려 하면 기본적으로 도로 양방향에 각각 1개씩, 총 2개 차로 쪽에 설치된 ‘상대식 정류장’에 세워야 하지만, 양문형버스는 왼쪽으로도 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 버스가 정차하는 섬식정류장은 1개 차로만 점유한다.

또 상대식 정류장을 설치하려면 승객 대기 공간 확보 때문에 사람이 다니는 인도 폭을 축소해야 하지만, 섬식정류장은 인도를 대부분 유지하면서 시설할 수 있다. 상대식 정류장 두 개를 섬식정류장 하나가 대체하는 효과를 갖고 있어 공사비도 적게 든다.

서광로 3.1km 구간(신제주 입구 교차로~광양사거리)에 제주형 BRT를 도입하며 투입한 순수 토목공사비는 71억원으로, 아라동 일원 버스 중앙차로 조성에 소요된 82억원보다 10% 가량 적다.

그러나 제주형 BRT는 이런 장점에도 여러 민원과 문제를 낳았

다. 인도를 유지하는 대신, 기존 차로를 점유하는 방식은 섬식정류장을 설치하다보니 일반 차량 차로 폭은 예전에 비해 감소해 운전자들 불만이 속출했다. 또 유턴 구간 폐쇄, 일부 구간의 S자 형태 차로 등으로 인한 혼선도 빚어졌다.

가장 큰 문제는 양문형버스로 전부 전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형 BRT가 성급히 도입됐다는 것이다. 양문형이 아닌 일반 버스들은 여전히 상대식 정류장에 세울수 밖에 없어 서광로 구간 왕복 6차로 중 4개 차로를 버스에 내주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는 일반 운전자의 서광로 기피 현상과 서광로 인근 도

로에는 차량 통행량이 역으로 증가하는 풍선포일 불렀다. 서광로 구간에서 버스 이동 속도가 과거보다 42% 향상됐음에도, 위 당선인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이런 문제를 염두에 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위 당선인은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도민이 불편하면 개선해야 한다.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는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신 위 당선인은 도심 직행 급행버스, 마을형 순환버스, 지역 책임 택시 운영제를 시행해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기본권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문제는 섬식정류장 등을 폐지하면 또다시 진통이 뒤따른다는 점이다. 이미 조성된 섬식정류장을 존치할지, 철거할지 결정하는 과정에

서 예산 낭비 논란을 부를 수 있고, 국가로부터 확보한 예산도 반납해야 한다. 민선 8기 도정은 동광로 2.1km 구간에도 제주형 BRT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 60여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제주형 BRT는 도와 정부가 절반씩 사업비를 부담하는 구조다.

도 관계자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기존 버스들을 양문형버스로 교체한 것이고, 상대식 정류장을 오가는 데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책을 폐지한다고해서 해당 버스의 효용 가치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이미 확보한 국비는 반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 이동속도는 분명히 향상됐고, 초기 발생한 불편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런 점들을 위 당선인에게 잘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로 가운데 섬식정류장이 들어서 있는 제주시 서광로 일대.

한라일보 DB

제33회 ‘한라환경대상’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와 한라일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라환경대상’의 주인공을 찾습니다. 이번 한라환경대상은 ‘환경을 생각하는 모든 이’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환경에 대한 UCC 공모전도 함께 진행되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참가자격	
▶기업체, 단체, (공)기관, 학교, 교사, 학생, 개인 등 누구나 참여 가능	
한라환경대상	
구분	포상내용(팀) 상금
일반 및 대학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70만원
학교	최우수상 100만원
교사	최우수상 70만원
중고등부	최우수상 50만원
초등부	최우수상 30만원
한라환경 UCC 공모전	
구분	포상내용(팀) 상금
일반 및 대학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60만원
고등부	최우수상 50만원
중등부	최우수상 40만원
초등부	최우수상 30만원
* 기 수상자의 경우 수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경과한 경우 수상 자격 부여 함	
* 단, 참여자가 주로 제주도민인 경우 공직선생원에 따라 상정할 수 있음	
선정방법	
▶신청 시 제출한 세부 공적 자료에 대한 서면 심사 (단, UCC 공모전의 경우 촬영된 영상물을 심사)	
제출서류	
▶신청서 및 추천서 (소정양식) 1부	
▶한라일보 홈페이지 (www.ihalla.com)에서 양식 다운로드	
▶세부 공적 개요 및 증빙 자료 첨부	
▶UCC 공모전의 경우 영상물을 저장하여 제출	
시상일정 및 장소	
▶2026년 8월 10일(월) / 한라일보사	
접수마감 및 문의처	
▶7월 3일(금)까지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1st100@ihalla.co.kr)로 접수	
▶한라일보 비즈니스부 ☎064)750-2291, 2540 / 팩스: 064)750-2520	
* 자세한 내용은 본보 홈페이지 제33회 한라환경대상 배너에서 확인 가능	

그날은 제주특별자치도 · 한라일보

전통시장서 수산물 구매 ‘최대 2만원’ 환급도, 10~14일 골목형상점가 등 11곳서 이벤트 진행

제주특별자치도는 10~14일 닷새간 도내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11곳에서 수산물 구매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행사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최근 중등 정세 등으로 이어지는 물가 상승에 대응해, 도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환급 대상은 국산·원양산 수산물로, 원물이 70% 이상 들어간 가공품도 포함된다. 환급액은 구매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는다. 행사 기간 닷새간의 구매 영수증은 합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음식점에서 산 수산물,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제로페이)으로 결제한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수입산 수산물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행사는 도남시장, 서문공설시장, 제주동문 재래·수산·공설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서귀포항도오일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세화민속오일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광양시장골목형상점가, 모슬포중앙시장, 솔라코지골목형상점가(제주시수협 어시장) 등 11곳에서 진행된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주 분만 인프라, 최근 10년 새 30% ↓... 5면

서귀포 어디가? 골목형 상점가!

서귀포시 골목형상점가 자세한 정보 확인은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골목형상점가’란?

15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모여 상인들이 직접 지역 특색을 살리고 브랜딩하는 자생형 골목 상점입니다.

골목형상점가에 가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 할인전 & 온누리상품권 사용으로 상인, 소비자 모두 할복 받는 직한 소비
- ▶ 상점가별 자체 할인 혜택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의 최대 40% 소득공제 혜택

서귀포시 골목형 상점가

JEJU SEOGWIPO